

'23. 9. 1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英, 러시아 '바그너 그룹' 테러단체로 지정 예정

- 9.6 언론은 영국 정부가 러시아 민간용병기업 '바그너 그룹'을 테러 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며, 지정 이후 해당 조직에 가입하거나 지지·지원하는 행위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

○ 인터폴, 국제 경찰 협력의 날 맞아 글로벌 협업 강조

- 9.7 인터폴은 '제1회 국제 경찰 협력의 날*'을 맞아 테러방지과 대응 및 조직범죄·금융범죄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 및 국경통제 강화 등 국제적 협력을 강조

* 지난해 12월 UN 총회에서 지정, 9.7은 1923년 現 인터폴의 전신인 국제형사 경찰위원회(ICPC)가 창설된 날로서 인터폴은 올해로 창설 100주년을 맞이

○ 프랑스, 공립학교 內 교복 의무화 추진

- 9.10 언론은 佛 정부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복장인 '아바야' 착용을 금지한 데 이어 교복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, 교육에서 종교적·정치적 주장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

※ 同 조치에 대하여 학교 현장 및 우파진영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환영했으나, 좌파연합 內 일부 정당들은 이슬람을 혐오하는 낙인찍기라며 반발

미 주

○ 美, 8월 한 달간 ISIS 대상 36차례 작전 수행

- 9.10 언론은 美 중부사령부가 연합 軍 등과 함께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ISIS를 상대로 8월 한 달간 36건의 작전을 수행했으며, 同 작전으로 ISIS 조직원 7명을 사살하고 25명을 구금했다고 보도

○ 「바이든」, 9·11 추모식에서 테러 대응의지 표명

- 9.11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軍기지*에서 9·11 테러 22주년 추모식에 참석했으며, 테러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언급하고 절대 굽히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

* 美대통령은 인도·베트남 순방 후 귀국 직후 참석했으며, 추모식은 세계무역 센터가 있던 추모광장에서 희생자 가족과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

아·태평양

○ 印 모디 총리, G20 개회사에서 테러 등 해결책 모색 강조

- 9.9 언론은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印 「모디」 총리가 테러, 사이버 안보, 수자원 안보 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

※ 모디 총리는 同 개회사에서 아프리카연합(AU)에 회원국 자격 부여 발표

중 동

○ 이스라엘, 이란 주도下 레바논 공항 건설 비판

- 9.11 「요아브 갈란트」 이스라엘 국방부장관은 국제안보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자료를 제시하며, 이란 주도下 레바논에 자국을 노린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공항이 건설되고 있다고 주장

※ 공항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건설되고 있으며, 현장에서 이란 국기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깃발이 포착

아프리카

○ 말리, 이슬람 극단세력에 의해 軍기지 등 연이어 피격

- 9.9 언론은 말리 동북부에서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 JNIM의 공격으로 7일 64명이 사망한 데 이어, 8일에도 軍기지 대상 연쇄 차량 자살 폭탄 테러 등이 수차례 발생해 일부 구역이 폐쇄되었다고 보도

※ 말리 정부는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‘대응과 평가가 진행 중’이라고 발표, 한편 駐말리 UN 평화유지군은 올 연말 철수 예정으로 域內 긴장 심화 중

리비아 벵가지市, 미국 정부시설 테러

- '12.9.11~12 리비아 벵가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「안사르 알 샤리아」가 美 정부 시설을 공격, 美 대사 등 4명이 사망하고 10여명 부상
 - 9.11 「안사르 알 샤리아」는 美 대사관을 공격하여 「크리스토퍼 스티븐스」 美 대사와 「숀 스미스」 정보관리관을 사살하였으며,
 - 9.12 美 대사관에서 1.6km 떨어진 CIA 별관을 겨냥한 박격포 공격으로 CIA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
- 이에, 美는 해병대원 50명과 이지스함 2대를 리비아로 파견하여 자국민과 대사관 직원 전원을 대피시키며 사태수습 실시
- 同 테러는 '12.6 美에서 상영된 反무슬림 영화 「무슬림의 순진함」이 '12.7 '유튜브'에 게재된 것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분석
 - * 同 영화는 이슬람과 선지자 「무함마드」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
 - 해당 영상에 대하여 많은 무슬림들이 격분하였으며, 특히 리비아에서는 알카에다 등의 무장세력과 연계된 反美시위가 크게 발생
- 이후, 美의회에서는 청문회 보고서를 통해 “당시 상황이 위험하다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”며 국무부의 실책을 비판

테러 상식

< 안사르 알 샤리아 벵가지(AAS-B) >

- (결성) '11년 리비아 내전 중 카다피 정권 축출을 위해 반군에 가담했던 이슬람주의 민병대(빈 알자라·말릭·순교자여단 등)들이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14.1), 영국('14.11), UN('14.11)
- (연계세력) 안사르 알 샤리아(데르나, 튀니지), ISIL, AQIM
- (핵심인물) 아부 칼리드 알 마다니(최고 지도자)
- (활동지역) 리비아 동부 데르나, 벵가지 및 중부 시르테
- (활동수법) 리비아 중·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군 및 ISIL과 교전, 주요인사 암살
- (주요동향)
 - '12.9 벵가지에서 이슬람모욕 영화(무슬림의 순진함) 유튜브 공개에 항의하는 과격 시위 중 美 공관 공격 및 방화 가담(美대사 등 4명 사망)
 - '17.5 조직구성원의 탈퇴 및 ISIL 전향 등으로 해산